

원저

《難經》의 臟腑虛實에 따른 鍼灸補瀉法에 관한 研究  
- 體質針 原理에 관한 研究(I) -

김주경, 손성철, 윤종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A study for strengthening-eliminating treatment method by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ccording to Jang-bu organ's  
deficiency-excessive based on 《Nankyong》

Ju-Kyoung, Kim · Seong-Cheol, Kim · Jong-Hwa, Yoon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ejective** : Based on 《sixty-ninth Nan》(《難經·六十九難》) the interpromoting of the five element's balance method to discuss following "when deficiency than should strengthen mother and when excessive than eliminate son" theories.

**Method** : This strengthening and eliminating method is based on Jang-bu organ's balance method when "east is excessive (liver excessive (肝實)) and west is deficiency (lung deficiency (肺虛))" then "eliminate the south and strengthen the north" method.

**Results** : The seventy-fifth Nan (《難經·七十五難》) explains "son effects mother's excessive and mother effects son's deficiency" theory where it balance method of the inter-overacting five elements controlling Jang-bu organ's differentiations. The eighty-first Nan (《難經·八十一難》) explains strengthening-eliminating method of "lung excessive and liver deficiency." Since there are two different perspective of seventy-fifth and eighty-first Nan, we must compare and discuss to make right point of view.

**Conclusion** : the treatment method in 《Nan kyoung sixty ninth nan》 could be understood as a view of five element constitutional theory (五行體質理論), the treatment method in 《Nan kyoung seventy-fifth nan》 of eliminating fire and strengthening water in case of liver excess and lung deficiency and the treatment method in 《Nan kyoung eighty-first nan》 of strengthening liver and eliminating lung in case of lung excess and liver deficiency could be understood as a view of the yin-yang constitutional theory (陰陽體質理論).

- 접수 : 11월 1일 · 수정 : 11월 12일 · 채택 : 11월 24일
- 교신저자 : 윤종화, 경주시 용강동 357 번지, 동국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1과(Tel. 054-770-1257)  
E-mail : item0916 @ chollian. net

**Key words :** 《Nan kyoung》, 《Nan kyoung sixty -ninth nan》, 《Nan kyoung seventyty-fifth nan》, 《Nan kyoung eighty- first nan》, yin-yan constitutional theory

## I. 緒論

《難經》은 《內經》과 더불어 중요한 經典 中 하나로 《黃帝八十一難經》, 《八十一難》 등의 名稱이 있고 著者에 대하여서는 여러 설이 있다. 戰國時代의 秦越人(自號扁鵲)의 著作이라 하나 《史記·扁鵲傳》, 《漢書·藝文志》에는 著者에 대한 記載는 없다<sup>1),2)</sup>.

《難經》은 漢 以前の 醫學傳統을 繼承하고 있으며 《素問》 《靈樞》의 內容의 기초 하에 獨取寸口診 등의 脈診法, 左腎右命門說, 廣義傷寒說, 奇經八脈, 五輸·原·八會·俞募穴 및 補瀉法등과 有關한 새로운 學說을 闡發하였다<sup>3),23)</sup>.

歷代醫家の 《難經》 註釋書는 唐에서 靑, 近代에 이르기까지 十數名을 넘지 않으며 文字, 編次등을 수 차례 改編하였다<sup>3),23)</sup>, 한편 唐代의 楊玄操는 八十一難을 十三篇으로 區分하였고<sup>4)</sup>, 宋元之際의 醫家인 吳澄은 脈學, 經絡, 臟腑, 疾病, 穴道, 鍼法의 六篇으로 區分하였고 후대의 《難經》 研究家는 이를 廣範히 사용하였다<sup>2)</sup>.

특히 崔<sup>5)</sup>는 <六十九難>과 <七十五難>은 《難經》의 鍼法理論 및 治療原則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本<sup>6)</sup>은 《難經·七十五難》은 治療部分중 最高의 學說로 기존의 難經研究方法和 實際臨床이 結合하여 研究가 進行하여야 本難의 眞面目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論者는 《難經·六十九難》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原則 下에 五行鍼法의 理致가 되는 五行의 相生關係의 調整法과 《難經·七十五難》의 “東

方實(肝實), 西方虛(肺虛)”의 臟腑形狀, “瀉南方, 補北方”의 補瀉方法,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의 原則에 따른 五行相剋關係의 糾正法<sup>3)</sup>으로 臟腑大小의 편차를 調節하는 鍼治療法 및 《難經·七十五難》의 상대적인 肺實肝虛의 補瀉法을 설명한 《難經·八十一難》을 比較研究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資料

### 1. 《難經·六十九難》

(原文) 六十九難曰：① 經言虛者補之，實者瀉之，② 不虛不實，以經取之，何謂也？

(解釋) 六十九難에 이르기를, 經에 “虛證에는 補法을, 實證에는 瀉法을 사용하고, 不實不虛한 病證에는 本經의 穴로서 治療한다” 고 하였는데, 무슨 理致인가？

(註釋) ① 經言虛者補之，實者瀉之：馬王堆 出土醫書 中에서 《陰陽十一脈灸經》에는 補瀉法은 없이 灸治療法이 있으며, 《陰陽脈死候》에 “脈盈而虛之, 虛易實之”의 虛證과 實證의 方法은 灸法, 砭法으로 하였고<sup>7)</sup>, 《靈樞·經脈》의 각 經脈의 流走路線, 是動則病, 是主某所生病의 文句 末에 “虛則補之, 實則瀉之, 熱則疾之, 寒則留之, 陷下則灸之, 不盛不虛以經取之, 陷下則灸之”의 治療原則은 鍼, 灸, 瀉血의 治療方法을 포함하는 原則이 提示되어 있다.

② 不虛不實，以經取之：五邪(《難經·五十難》의 虛, 賊, 實, 微, 正邪)所傷이 아니며, 正經自病(《難經·四十九難》)으로 因한 疾病은 自經의 穴을 取하여 治療하며, 補母瀉子의 他經 取穴의 原則이 필요하지 않음을 이룸이다<sup>8)</sup>.

(原文) 然 : ①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當先補之, 然後瀉之. 不虛不實, 以經取之者, 是正經者生病, 不中他邪也, 當自取其經, 故言以經取之.

(解釋) 답하기를, 虛證에는 그의 母經에 해당하는 穴로서 治療하고, 實證에는 그의 子經에 해당하는 穴로서 治療하며, 일반적으로 먼저 補法을 사용하고 나서 瀉法을 사용한다. 不實不虛한 病證에는 本經의 穴로서 治療하는데, 이는 本經에서 自生한 病證이며 다른 經脈에서 轉變되어 온 病邪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經의 經脈을 위주로 치료하며 다른 經脈을 치료할 필요가 없으므로 本經의 穴로서 治療한다고 말한 것이다.

(註釋) ①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 母, 生我者也. 子, 我生者也. 李<sup>9)</sup>는 계절적인 脈象과 五行相互間의 子母關係의 補瀉로, 葉<sup>8)</sup>은 《靈樞·經脈》의 十二經脈의 治療原則인 “盛則瀉之, 虛則補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로 擴大解釋하였고, 王<sup>10)</sup>은 《難經·十難》의 五行子母關係 및 《靈樞·經脈》의 病證의 虛實治療에 利用할 수 있다 하였고, 徐<sup>11)</sup>는 經脈이 屬한 臟腑의 五行屬性에 根據하였고, 丁<sup>4)</sup>은 本臟經脈의 五輸穴의 五行屬性에 根據하였는데, 本<sup>6)</sup>은 “虛則補其母” 는 正氣가 虛하면 五行上의 母臟, 母經을 補하고, “實則瀉其子” 는 邪氣가 實하면 五行上의 子臟, 子經을 瀉한다 하였고, 凌<sup>3)</sup>은 五邪所傷의 病證에 適用함이 妥當하였고, 漚<sup>12)</sup>은 自經五輸穴補瀉法, 十二經五輸穴補瀉法의 鍼治療 뿐만 아니라 藥物治療에도 適用이 可能하다 하였다.

## 2: 《難經·七十五難》

(原文) 七十五難曰 : ① 經言 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 何謂也?

(解釋) 七十五難에 이르기를, 經에 “東方에 屬하는 臟이 實하고 西方에 屬하는 臟이 虛하면 南方에 屬하는 臟을 瀉하고 北方에 屬하는 臟을 補한다” 고

하였는데, 무슨 뜻인가?

(校注) ① 經言 : 本<sup>6)</sup>은 經言의 經은 《內經》을 指稱하나, 《內經》에는 此句가 없다하였고, 滑<sup>15), 23)</sup>은 扁鵲의 時代(大略 B.C 7-5 세기 頃)에 어찌 古醫經이 있을 수 있느냐 하였고, 余<sup>13), 23)</sup> 등은 《漢書·藝文志》에는 七種의 醫經이 記載되어 있으나, 현재에는 단지 《黃帝內經》만이 保存되어 되어 있다. 《難經》에서 經言의 內容이 《靈樞》, 《素問》에 찾을 수 없는 것이 19條나 되고, 相應하는 內容이 13條나 되며, 《靈樞》에서만 나타나고, 《素問》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재의 《靈樞》와는 同源異流의 古代文獻에 根源을 두고 있다하였다.

(註釋) 《難經·七十五難》에서의 “東方實, 西方虛” 는 “東方木, 西方金, 南方火, 北方水, 中央土”의 五行思想中 虛한 金과 實한 木을 同時 條件으로 두고 있으며, 또 《難經·八十一難》에서의 “西方實, 東方虛” 의 金實肝虛의 補虛瀉實의 補瀉法을 동시에 살펴보면 《難經·七十五難》, 《難經·八十一難》은 陰陽相對的 觀點을 부각시킨 難으로 볼 수 있다.

(原文) 東方肝也, 則知 ① 肝實 ; 西方肺也, 則知 ② 肺虛. ③ 瀉南方火, 補北方水 .

(解釋) 東方은 肝에 比유되므로 東方의 臟이 實하다는 것은 肝實證을 意味하며, 西方은 肺에 比유되므로 西方의 臟이 虛하다는 것은 肺虛證이다. 治療할 때에는 南方을 瀉하고 北方을 補한다.

(註釋) ① 肝實 : 肝實의 原因을 騰<sup>14)</sup>은 肝의 亢極의 原因을 心火에 두어 心火의 有餘로 肝氣를 食하지 못하여 實盛한다하였고, 王<sup>8)</sup>凌<sup>3)</sup>은 첫째 心火가 盛하여 心이 肝氣를 食하지 못 한 것, 둘째 心火가 盛하여 肺金을 克하여 肺虛로 肝木을 相剋하여 調節하지 못하여 肝實이 된다하였고, 本<sup>6)</sup>은 火實한 子氣가 母氣인 肝에 傳하여 肝實한 子母關係의 病因關係로 說明하고 火實 → 金虛 → 木實의 傳經關係로 解釋하였다.

② 肺虛 : 肺虛의 原因을 虞<sup>4)</sup>는 肝木이 實하여

脾土를 克하여 土虛하여 肺金을 養하지 못하여 金虛한다하였고, 四<sup>15)</sup>는 肝實이 實盛하여 肺金을 侮하고, 또한 脾土를 克하여 肺金을 養하지 못하여 肺虛한다하였고, 王<sup>8)</sup>은 心火가 盛하여 肺金을 克하여 나타나는 것, 脾土가 重實한 肝氣의 靑을 받아 虛하여 肺金을 生하지 못하는 두가지 原因으로 설명하였다.

③ 瀉南方, 補北方 : 《難經》의 肝實肺虛의 治法은 《難經·六十九難》의 實則瀉其子, 虛則補其母의 原則에 의하면 肝木實은 瀉心火하고 肺金虛는 補脾土하지만, 《難經·七十五難》의 治法은 肝木實은 瀉心火하는 것은 實則瀉其子の 《難經·六十九難》과 동일하나, 肺金虛의 治法은 補脾土하지 않고 補腎水하는 것은 虛則補其母의 원칙과는 다르게 虛則補其子の 原則이다.

(原文) 南方火, 火者木之子也 ; 北方水, 水者木之母也, 水勝火.

(解釋) 南方은 火에 屬하고 木은 火를 生하므로 火는 木의 子이고, 北方은 水에 屬하고 水는 木을 生하므로 水는 木의 母이며 水는 火를 克하는 作用이 있다.

(原文)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解釋) 子에 屬하는 臟을 補하면 그 母臟의 臟器를 充實케 하며, 母에 屬하는 臟을 瀉하면 子에 該當하는 臟器의 氣를 減衰시킨다.

(註釋) (1) 子能令母實<sup>3)</sup> : 원문에서 “火者木之子也”라 했다. 葉<sup>8)</sup>은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에서 子母의 關係는 肝木이 중심이 되어 肝의 子는 火와 肝의 母인 水의 相互關係된다하였고, 王<sup>8)</sup> 騰<sup>14)</sup>은 子能令母實은 火(子)가 盛하면 한편으로 木(母)의 氣를 食하지 않아 木으로 하여금 또한 實하게 하므로 病因을 말한다하였고, 張<sup>16)</sup>은 子의 心火가 盛하여 肝實을 實하게 하는 病因과 子인 水를 補하여 肺金의 氣를 食하지 않아 肺虛를 治療하는 治法의 두가지로 解釋이 가능하다하였고, 徐<sup>17)</sup>는 諸家들이

木은 火의 母이고, 水는 金의 子로 認識하였기 때문에 意義를 밝히기 困難하였으나 此句는 水勝火의 字句 뒤에 있으므로 子母二字는 木의 子와 木의 母가 明白하다하였다<sup>1)</sup>

(2) 母能令子虛<sup>3)</sup> : 원문에서 “水者木之母也, 水勝火”라고 했다. 葉<sup>8)</sup>은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에서 子母의 關係는 肝木이 중심이 되어 肝의 子인 火와 肝의 母인 水의 相互關係라 하였고, 王<sup>8)</sup> 騰<sup>14)</sup>은 “母能令子虛”는 木의 母인 水를 補하여 木의 子인 火의 氣가 減하여 實한 木의 氣를 食하여 木勢을 平하게 하는 治法으로 說明하였고, 張<sup>16)</sup>은 土는 金의 母로서 木의 靑을 받아 金을 生하지 못하여 金虛되는 病因과 木의 母인 水를 補하여 木의 子인 火의 氣가 減하여 實한 木의 氣를 食하여 木勢을 平하게 하는 治法의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原文) 故 ① 瀉火補水, 欲令金不得平木也.

(解釋) 그래서 南方의 心火를 瀉하고 北方의 腎水를 補하면 肝實肺虛의 證을 治療할 수 있다. 이는 西方의 肺金으로 하여금 肝木實의 反侮를 받지 않으므로써 平衡을 얻는 原則이다.

(校注) 欲令金不得平木<sup>5)</sup> : 《太素·經脈之一》 楊注의 인용에는 “金” 다음에 “去”字가 있고, “平”字는 “干”으로 되어 있다. 《本義》에서 滑壽는 “不字는 衍文인 것 같다”고 했는데, 參考할만 하다. 또 《集解》에서 孫一奎는 “不字는 衍文이 아니다. 직접 金으로 木을 치지 않으므로 瀉火補水의 治法을 쓰는 것이다”라 했다. 《鍼灸大成》 卷四 難經補瀉에서 楊繼洲는 “瀉火補水로 간접적으로 치료하고, 직접 金으로 木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原文의 “欲令金不得平木”의 뜻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原文의 “得”은 “能”으로 해석한다. <助字辨略> 卷五에 “得, 能也”라 했고, 또 “不得, 猶云不可”라 했다. 이에 따르자면 “不”字를 衍文으로 보지 않아도 뜻이 통한다.

(註釋) ① 瀉火補水 : 《難經·七十五難》의 治法

은 肝木實은 瀉心火하는 것은 實則瀉其子の 《難經·六十九難》과 동일하나, 肺金虛의 治法은 補脾土하지 않고 補腎水하는 것은 虛則補其母의 원칙과는 다르게 虛則補其子の 原則이다.

滑<sup>15)</sup>은 補土하지 않고 補水하는 理由를 瀉火에서는 첫째 木의 氣를 脫하고, 둘째, 金의 克을 除去하는 것의 두 가지 이득, 補水에서는 첫째 金의 氣를 益하는 것, 둘째 火의 光을 除하는 것의 두 가지 이득이 있다. 一舉兩得의 效能을 있으므로 “越人の 妙”라 하였고, 補土하여 金의 氣運만 더하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原文) 經曰不能治其虛, 何問其餘, 此之謂也 ①.

(解釋) 經에 “虛證을 治療하는 法則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複雜한 病證을 治療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앞에서 말한 意味이다.

(校注) ① 經曰 … : 현재의 《內經》에는 이 句가 없음.

(註釋) 本<sup>6)</sup>은 “金木水火土, 當更相平, 木欲實……”의 他經의 轉變實證에는 먼저 虛를 治療하는 治虛平實의 治法을 強調하였고, 葉<sup>6)</sup>은 肝實金虛에서 金虛의 治法을 알지 못하면 다만 一經의 補瀉에 그쳐 他病을 治療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張<sup>1)</sup>은 肝實金虛의 治療는 瀉火補水에 있으므로 越人이 經文을 引用하여 結論을 지었다고 하였으며, 凌<sup>3)</sup>은 此句는 瀉火補水의 治法中에서 補水에 重點을 두어 補虛의 중요성을 強調한 것과 補中制의 觀點이 동시에 있다하였다.

### 3. 《難經·八十一難》

(原文) …… 假令 ① 肝實肺虛, 肝者木也, 肺者金也, 金木當更相平, 當知金平木. 假令肺實而肝虛微少氣, 用鍼不補肝而反重實其肺, 故曰實實虛虛, 損不足而益有餘②. 此者, 中工之所害也.

(解釋) 가령 肝實하면서 肺虛한 病證의 경우, 肝

의 五行은 木이고 肺의 五行은 金인데 金과 木은 相互制約關係에 있어서 서로 平衡을 維持하고 있어야 한다. …… 이와는 반대로 肺實하면서 肝虛한 경우에 肝의 氣가 매우 虛弱한데 肝氣를 補해주지 않고 오히려 實한 肺氣만 더욱 보강해주었다면, 이는 “實한 것을 實하게 하고 虛한 것을 虛하게 하며, 不足한 것을 不足하게 하고 有餘한 것을 有餘하게”하는 것이라 평범한 의사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이다.

(註釋) ① 肝實肺虛 : 肝實肺虛의 治療法에 있어 《難經·七十五難》에서는 補北方(腎水)하고 瀉南方(心火)하는 補瀉法을 사용하였으나, 《難經·八十一難》에서 治療法은 전체적으로는 五行理論에 맞추었으나, 內容의으로는 陰陽相對論의(陰陽體質-東醫壽世保元의 四象醫學)인 瀉肝補肺의 補瀉治療法을 提示하였는데, 이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難經》은 처음으로 五行論이 專門의으로 導入되는 時期의 著作이므로 《內經》의 陰陽論과 五行論의 混合되는 概念, 단순한 補瀉原理를 提示하기 위하여 설정한 概念, 혹 初步의인 陰陽體質醫學的인 學說을 提起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凌<sup>3)</sup>은 《難經·八十一難》의 補瀉概念은 鍼과 藥物에 모두에 활용.

## II. 本論

### 1. 臟腑의 虛實에 따른 補瀉

《難經》의 臟腑補瀉法은 <六十九難>, <七十五難>, <八十一難>이며, 《難經·六十九難》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경우도 虛實에 대한 補瀉法의 五行論에 立脚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五行 각각의 虛實한 경우를 모두 말한 것이므로 病因에 따른 五邪의 轉移를 治療하는 五行化生의 補瀉法이다. 劉<sup>18)</sup>는 五行學說에서 “虛則補其母”는 “母能令子虛”의 理論이며, “實則瀉其子”는 “子能令母實”의 理論이다

하였고, 王<sup>19)</sup>은 肝實肺虛의 治療法으로 心火實로 인한 肝實은 子能令母實이며, 脾土虛로 인한 肺金虛는 母能令子虛가 되지만 <七十五難>의 意味와는 差異가 있다하였다.

《難經·七十五難》의 “東方實, 西方虛”는 “東方木, 西方金, 南方火, 北方水, 中央土”의 五行思想中 虛한 金과 實한 木을 同時 條件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難經·八十一難》에서의 “西方實, 東方虛”의 金實肝虛의 補瀉法을 동시에 보면 相對的 觀點을 浮刻시킨 條文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東方實, 西方虛”는 木이 實할 경우 相對的으로 金이 虛할 수 밖에 없는 陰陽相對的인 同時狀況으로 보면 이것은 五臟六腑의 臟腑 生理, 病理上 虛한 臟腑를 補하거나 瀉하는 臟腑補瀉法을 제시한 《難經·七十五難》과 《難經·八十一難》이 體質醫學觀點에 가깝다고 보면, 肝이 大하면 相對的으로 肺가 小하여 “肝大肺小”의 象形局으로 가지는 藥物治療中心의 四象醫學의 太陰人 혹은 鍼治療中心의 體質鍼의 木體質의 臟腑論으로 解釋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凌<sup>3)</sup>은 《難經·七十五難》과 《難經·八十一難》은 肝肺兩臟의 金木相互平衡을 調節하는 關係다. 《難經·七十五難》에서는 肺虛肝實에 間接的인 治療法의 旁治인 補水瀉火를, 《難經·八十一難》에서는 肺實肝虛에는 直接的인 治療法인 補肝瀉肺를 說明하였다. 兩者를 살펴보면 鍼治療時에 有關한 臟腑의 直接的인 補虛瀉實의 方法도 利用할 수 있고, 또 五行相互間의 相制關係로 有關한 臟의 旁治 즉 間接的인 治療法을 利用하여 平衡關係를 調節할 수 있으므로 鍼灸 및 藥物治療에서도 重要한 意義가 있다.

以上을 보면, 歷代 難經의 注釋家들은 五行의 觀點에서 《難經·七十五難》을 理解하였고, 《靈樞·陰陽二十五人論》의 五行體質의 觀點으로 보면 本<sup>6)</sup>의 五行實證의 治虛平調法의 治法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難經·七十五難》을 《東醫壽世保元<sup>20)</sup>》의 四象醫學의 陰陽體質의 觀點으로 보면 “東方實, 西方虛”는 太陰人의 “肝大肺小” 또는 “北方實, 中央土虛”의 少陰人의 “腎大脾小”의 두 종류만 一致하므로 五行體質論과 陰陽體質論의 差異點에 관한 研究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難經·六十九難》《難經·七十五難》《難經·八十一難》의 臟腑補瀉의 差異點

瀉南方, 補北方의 補瀉法은 《難經》의 肝實肺虛의 治法은 《難經·六十九難》의 實則瀉其子, 虛則補其母의 原則에 의하면 肝木實은 瀉心火하고 肺金虛는 補脾土하지만, 《難經·七十五難》의 治法은 肝木實은 瀉心火하는 것은 《難經·六十九難》의 實則瀉其子와 동일하나, 肺金虛의 治法은 補脾土하지 않고 補腎水하는 것은 虛則補其母의 원칙과는 다르게 虛則補其子의 原則이다. 《難經·八十一難》에서 肺實肝虛의 補瀉法은 瀉肺補肝의 方法을 사용하였다.

崔<sup>5)</sup>는 《難經·七十五難》의 肝實肺虛에 “瀉心火, 補腎水”의 補瀉法을 “一舉兩得의 效果”라고 하였다. 五行의 相克關係를 利用한 것에 그치지 않는 다. 이를 살펴 보면 虞<sup>4)</sup>는 肝實의 두가지 原因이 心이 肝을 도와 肝實이 되는 것과 肺가 肝을 制壓하지 못하여 肝實이 되는 것, 肺虛의 두가지 原因도 心이 肺를 克하여 肺虛가 되는 것과 脾가 肝의 克을 받아 肺를 生하지 못하여 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王<sup>19)</sup>은 肺虛의 原因은 心火의 克, 脾土의 土不生金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腎水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瀉火하면 木氣는 각아 土가 克을 받지 않고 金을 生하게 되어 西方도 虛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으며, 또 “虛則補其母”의 原理에 따라 補脾하지 않고, 補水하는 理由는 補脾하여 土가 金을 生할 수는 있어도 火의 克을 받아 惡循環이 계속되어 補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滑<sup>15)</sup>은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를 ‘瀉南方火’하여 木의 子인 火氣를 奪하

여 母氣인 木氣의 有餘를 食하게 하는 것이고, ‘補北方水’ 하여 肺의 子인 水氣를 더하여 母인 金의 氣를 食하지 못하게 하고, 瀉心火하여 金이 火의 克을 받지 않아 金이 實해져서 木을 다시 克해서 木의 平을 이룬다고 하였다.

凌<sup>3)</sup>은 “經曰不能治其虛, 何問其餘”에 대하여 肝實보다는 肺虛에 重點을 두어 瀉火, 補水중에 補水を 더욱 강조하면서 虛를 治療하는 것으로 보았다. 王<sup>19)</sup>葉<sup>8)</sup>은 水虛火旺의 證狀에 補水を 하지 않는 약물로 治療하여 藥力이 미치면 效果가 있으며, 藥力이 떨어지면 다시 反復하고, 苦寒한 藥으로 抑陽扶陰하는 治法은 火邪를 瀉하는데 그치며, 腎陰을 補하는 方法은 熟地黃, 黃蘗등의 藥物類로 補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凌<sup>3)</sup>은 木火刑金으로 發生한 病證의 治法으로 腎水を 補하면서 心肝의 火를 清하는 것을 兼하면 반드시 治療效果가 있다고 하였다.

以上을 보면, 補腎水로 水克火하여 瀉心火가 되며 그 自體가 火虛를 이루어 木으로 하여금 好生하게 하여 自然스럽게 相生의 原理로 木의 氣가 泄하여져 平氣를 이루고, 補腎水하므로써 虛한 金의 漏氣를 막아 五行의 相生을 이룬다. 補腎水로 瀉心火가 저절로 이루어져 水を 補하는 것만으로도 實한 肝을 虛하게 할 수 있고, 虛한 肺를 實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母(水)能令子(木)虛, 子(水)能令母(肺)實”이고 水가 中間에서 肝肺의 不均衡을 疏通하여 均衡을 이루고 循環하게까지 하는 것이다.

《難經·七十五難》의 鍼刺原則是《難經·六十九難》의 五行相生 鍼刺原則의 연장으로 五行相克의 鍼刺原則만 說明하려 했다면 平之의 說明에서 그쳐야 했을 것이나 五行의 相克으로 虛實의 均衡을 이룬다는 觀點외에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를 말한 것은 相生의 原理에 의한 概念으로 ‘越人의 妙’를 理解할 수 있다.

臟腑의 虛實에 따른 補瀉法은《六十九難》,《七

十五難》,《八十一難》의 長短點이 있으므로 各篇을 穿鑿하는 研究 및 相互比較研究를 통하여 五行論, 陰陽論에 適合한 鍼灸補瀉方法을 導出하여야한다고 생각된다.

### 3.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의 意味

《難經·七十五難》에서 “火者木之子也, “水者木之母也. 水勝火”라 했는데, 王<sup>8)</sup>騰<sup>14)</sup>은 “子能令母實”은 火(子)가 盛하면 한편으로 木(母)의 氣를 먹지 않아 木으로 하여금 또한 實하게 하므로 病因을, “母能令子虛”는 木의 子인 水를 補하여 木의 子인 火의 氣가 減하여 實한 木의 氣를 食하여 木勢을 平하게 하는 治法으로 說明한다하였다. 張<sup>16)</sup>은 “子能令母實”는 心火가 盛하여 肝實을 實하게 하는 病因과 子인 水를 補하여 肺金의 氣를 食하지 않아 肺虛를 治療하는 治法과 “母能令子虛”는 土는 金의 母로서 木의 剋을 받아 金을 生하지 못하여 金虛되는 病因과 木의 子인 水를 補하여 木의 子인 火의 氣가 減하여 實한 木의 氣를 食하여 木勢을 平하게 하는 治法으로 解釋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葉<sup>8)</sup>은 諸家들의 이 難에 대한 註釋이 모두 越人의 經旨에 미치지 못하며 오직 清代의《難經經釋》의 註釋을 平價하여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에서 子母의 關係는 肝木이 중심이 되며 肝의 子는 火와 肝의 母인 水의 相互關係으로 認識하였다. 徐<sup>17)</sup>는 諸家들이 木은 火의 母이고, 水는 金의 子로 認識하였기 때문에 意見이 分分하였고 이 難의 意味를 淸澈하여 밝히기 困難하다하였으며 이 句는 水勝火의 字句 뒤에 있으므로 子母二字는 木의 子와 木의 母가 明白하다 하였다.

그러나 凌<sup>3)</sup>의 “子能令母實”은 原文에서 「火者木之子也」하였고, 火盛하면 木氣를 不食하여 木 또한 盛하고, 火盛하여 金을 克하면 金이 虛하게 되어 木을 克하지 못하여 木實하게 되므로 火盛하면 木實하다는 病因으로 認識하였고, “母能令子虛”는 原

文中 「水者木之母也. 水勝火」 하였고, 水盛하면 火를 克하여 火衰한다는 것은 火衰하면 木氣를 食하므로 木虛하게 하는 것과 火衰하면 金을 剋할 수 없어 金盛하여 制木하여 木虛하게 한다. 그러므로 補水는 能히 木을 虛하게 한다하여 治法으로 認識하였다.

#### IV. 考察

《難經》은 《內經》과 더불어 중요한 經典 中 하나로서 漢代以前의 先秦醫學의 傳統을 繼承하고 있으며, 《內經》등 古代文獻의 醫學 經旨를 밝히기 위해 醫學上의 疑難한 문제를 問答形式의 八十一難을 設定하고 探討하여 診法, 經絡, 臟腑, 疾病, 俞穴 및 補瀉 등의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難經》은 《黃帝八十一難經》, 《八十一難》 등의 名稱이 있으며 著者에 對하여 戰國時代의 秦越人(自號扁鵲)의 著作 或 魏의 王叔和의 著作이라는 설이 있으며, 《史記·扁鵲傳》, 《漢書·藝文志》에는 著者에 對한 記載는 없고, 《扁鵲內經》, 《扁鵲外經》의 書名만 있다<sup>2)</sup>.

그러나 楊玄操의 《難經集注·序》에 “黃帝八十一難經者, 斯乃渤海秦越人之所作也.” 하였고, 《舊唐書·經籍志》에 “《黃帝八十一難經》 二卷, 秦越人撰” 하였고, 대부분 難經의 研究家는 此說을 따랐다.

그러나 《難經》의 著作時期는 《內經》의 後이고 《傷寒卒病論》의 前이며 比較的 長時間의 輾轉相轉하여 不斷히 改修, 整理, 補充過程을 거쳐 形成되었다 하였고<sup>23)</sup>, 何<sup>22)</sup>는 《史記·扁鵲倉公傳》의 淳于意의 25 診籍을 分析하여 倉公의 脈診과 病案은 《內經》과는 다르고 《難經》의 寸關尺診 및 疾病觀과 一致하여 《難經》은 淳于意의 醫學을 傳承하고 研究한 西漢의 齊派醫學家들의 著作이다 하였다.

歷代醫家의 《難經》 註釋書는 唐에서 淸까지 李嗣, 滑壽, 呂復, 徐大春, 葉霖 등과 近代의 陳邦賢, 黃維三, 張山雷등 數十名을 넘지 않고, 註釋書는 文字·編次를 수 차례 改編하였다<sup>23)</sup>. 唐代의 楊玄操은 八十一難을 十三篇으로 區分하였고, 宋元之際의 醫家인 吳澄은 重新釐正하여 一難에서 二十二難의 脈學, 二十三難에서 二十九難의 經絡, 三十難에서 四十七難의 臟腑, 四十八難에서 六十一難의 疾病, 六十二難에서 六十八難의 穴道, 六十九難에서 八十一難의 鍼法의 六篇으로 區分하였고 이 후의 《難經》 研究家는 六篇의 分類를 沿用하였다<sup>3), 22)</sup>.

《素問》《靈樞》의 內容의 基礎下에 獨取寸口診脈法, 左腎右命門說, 廣義傷寒說과 奇經八脈, 五輸·原·八會·俞募穴 및 補瀉法등의 鍼灸와 有關한 學說과 陰陽五行學說, 元氣學說, 및 臟象學說을 闡發하여 《針灸甲乙經》《脈經》《傷寒雜病論》《千金方》등 後代 韓醫學의 醫籍에 미친 影響은 至大하다 하였다<sup>2), 22)</sup>.

특히 崔<sup>5)</sup>는 六十九難과 七十五難은 《難經》의 鍼法理論 및 治療原則이 제시되어 있다하였고, 本<sup>6)</sup>은 《難經·七十五難》은 治療部分 중 最高의 學說로 기존의 難經研究方法과 實際臨床이 結合하여 研究가 進行하여야 本 難의 眞面目을 알 수 있다하였다.

《難經·七十五難》의 瀉南方, 補北方의 補瀉法은 《難經》의 肝實肺虛의 治療法으로 《難經·六十九難》의 實則瀉其子, 虛則補其母의 原則에 의하면 肝木實은 瀉心火하고 肺金虛는 補脾土하지만, 《難經·七十五難》의 治法에서 肝木實을 瀉心火하는 것은 實則瀉其子の 《難經·六十九難》과 동일하나, 肺金虛의 治法은 補脾土하지 않고 補腎水하는 것은 虛則補其母의 원칙과는 다르게 虛則補其子の 原則이다.

또 《難經·七十五難》의 “經曰不能治其虛, 何問其餘” 原文은 虛를 治療하는 것의 重要性을 강조한 것이며, 王<sup>19)</sup>虞<sup>8)</sup>는 肺虛의 原因은 心火의 克, 脾土의



土不生金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腎水에 있다고 하였고, 滑<sup>15)</sup>은 補北方水하여 肺의 子인 水氣를 더하고, 母氣인 金氣를 不食하여 金平하고, 金은 制木하여 木不實하게 한다하였다.

이상을 보면, 補腎水하여 瀉心火하고, 肝實을 虛하게 하며, 虛한 肺를 實하게 하므로 凌<sup>3)</sup>은 肝實보다는 肺虛에 중점을 두어 瀉火, 補水중에 補水를 더욱 강조하였다.

《難經·七十五難》의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의 子母를 徐<sup>17)</sup>는 諸家들이 木은 火의 母이고, 水는 金의 子로 認識하여 意見이 紛紛하고 此難의 意味를 穿鑿하기 困難하다 하였다. 그러나 이 句는 水勝火의 字句 뒤에 있으므로 子母二字는 木의 子(心火)와 木의 母(腎水)가 明白하다 하였다.

“子能令母實”은 火(子)가 盛하면, 첫째 木(母)의 氣를 不食하여 木으로 하여금 또한 實하게 하고, 둘째 火盛剋金하여 金虛하여 制木하지 못하여 肝實해지는 病因으로 認識할 수 있고, “母能令子虛”는 補水하면, 첫째 木의 母인 水를 補하여 木의 子인 火의 氣가 減하여 實한 木氣를 食하여 木勢을 平하게 하는 것, 둘째 金은 木의 母인 水에 金氣를 주지 않아도 되며 또 火의 剋을 받지 않아도 되어 金平하게 하는 治法으로 認識할 수 있다.

《難經·七十五難》의 “東方實, 西方虛”는 “東方木, 西方金, 南方火, 北方水, 中央土”의 五行思想中 虛한 金과 實한 木을 同時 條件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難經·八十一難》에서의 “西方實, 東方虛”의 金實肝虛의 補瀉法을 동시에 보면 陰陽相對의 觀點을 浮刻시킨 條文으로 생각된다.

한편, 歷代 難經의 注釋家들은 五行의 觀點에서 《難經·七十五難》을 理解하였다. 이는 《靈樞·陰陽二十五人論》의 五行體質의 觀點으로 보면 本<sup>6)</sup>의 五行實證의 治虛平調法의 治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難經·七十五難》을 《東醫壽世保元<sup>21)</sup>》의 四象醫學의 陰陽體質의 觀點으로 보면 “東方實,

西方虛”는 太陰人의 “肝大肺小” 또는 “北方實, 中央土虛”의 少陰人의 “腎大脾小”의 두 종류만 一致하므로 五行體質論과 陰陽體質論의 臟腑虛實에 따른 鍼灸, 藥物의 補瀉法의 差異點에 관한 研究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보면 臟腑의 虛實에 따른 補瀉法은 《六十九難》, 《七十五難》, 《八十一難》의 長短點이 있으므로 各篇을 穿鑿하는 研究 및 相互比較研究를 통하여 五行論, 陰陽論에 適合한 鍼灸補瀉方法을 導出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鍼治療의 方法論의 研究는 《靈樞·九鍼十二原》의 “…… 四關主治五臟 ……”의 肘膝以下の 五輸穴의 向心性路線이 主治內臟하는 觀點에 立脚하고, 五行生化의 原理<sup>8)</sup>에 따른 鍼法의 原理를 五行鍼 治療法에 適用할 수는 있는 《難經·六十九難》, 陰陽相對의 臟腑의 刺鍼補瀉法<sup>8)</sup> 즉 《難經·七十五難》의 “東方實, 西方虛”,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補北方, 瀉南方”의 原理에 依據하여 陰陽五行論을 統合하는 鍼治療의 原理 및 方法을 研究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V. 結 論

《難經》의 臟腑虛實에 따른 鍼灸補瀉法을 <六十九難>, <七十五難>, <八十一難>을 비교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難經·六十九難》, 《難經·七十五難》은 모두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의 원칙이 있지만, 五行과 陰陽論의 臟腑病理의 差異와 子母關係의 認識差異가 있었다. 그리고 《難經·七十五難》의 “子能令母實”은 病因으로, “母能令子虛”는 治法으로 解釋하는 것이 難經注釋家들의 主流의인 認識임을 理解할 수 있었다.

2. 《難經》의 臟腑補瀉法에서 肝實肺虛를 《難經·六十九難》에서는 瀉心火, 補脾土하였고, 《難經·七十五難》에서는 瀉心火, 補脾土하지 않고 補腎水하는 것은 肺虛에 重點을 두고 瀉火보다는 補水を 강조하였고, 《難經·八十一難》에서는 肺實肝虛의 補瀉法은 實한 臟은 瀉하고 虛한 臟은 補하는 瀉肺補肝의 治療法이다.

3. 《難經·六十九難》의 治療原則은 《靈樞·陰陽二十五人論》의 五行體質論으로 解釋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難經·七十五難》의 “東方實, 西方虛”의 肝實金虛의 治法인 瀉火補水와 《難經·八十一難》의 “西方實, 東方虛”의 金實肝虛의 治法인 補肝瀉金의 補瀉法을 응용하면 臟腑의 相對的의 觀點인 陰陽體質論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V. 參考文獻

1. 賈維誠. 三百種醫籍錄. 하얼빈: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2:25.
2. 張吉. 各家鍼灸醫籍選.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6-8.
3.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1:1, 109, 121, 128, 129, 136.
4. 王九思. 難經集注. 台北:臺灣中華書局. 1985: 1. 290, 303.
5. 崔昇勳. 難經入門. 서울:法仁文化社, 1998:33, 331, 333.
6. 本間祥白著·吳家鏡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391-392, 480-481, 483, 484.
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319.
8. 葉霖. 難經正義.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120, 123, 126-127, 129, 130.
9. 李銅.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7:258-259.
10. 王樹權. 圖註八十一難經譯.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2:207-208.
11. 徐靈胎. 徐靈胎醫學全書·難經經釋. 北京:中醫藥出版社. 1999:43.
12. 溇湘清 編著. 難經今釋, 서울:一中社. 1992:257-259.
13. 余自漢. 內經靈素考.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2:8-13.
14. 騰滿卿. 難經古義, 台北:泰和堂出版社. 1979: 115.
15. 滑壽. 難經本義.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5: 93, 94.
16. 張世賢. 校正圖註難經. 서울:醫道韓國社. 1976:卷四, 七十五難.
17. 丹波元簡. 難經疏證.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4:1021.
18. 劉壽永. 易經難經新解.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8:636-638.
19. 王履. 醫經溯洄集.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3:60-64.
20. 洪淳用. 四象診療保元. 서울:書苑堂. 1991:67-110.
21. 韓東錫.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誠理會出版社. 1985:57.
22. 何愛華. 難經解難校釋.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2:231-242, 261-281.
23. 南京中醫學院校釋. 難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78:3-4. 15.